

중국문헌을 통해본 중세 동남아의 불교문화(II)

Some Views for the Buddhist Culture of Southeast Asia
at Middle Ages through the Chinese Description (II)

주수완*
Su Wan JOO

I. 머리말

이 글은 앞서 『수완나부미』 제2권 제1호에서 다루었던 법현과 의정의 여행기를 통해본 동남아시아의 중세 불교문화에 대한 고찰에 이어 중국 정사 및 『집신주삼보감통록』과 『위서 석로지』에 수록된 동남아시아 불교 및 종교, 문화 관련 사료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정사는 특히 『남제서』, 『양서』, 『구당서』, 『신당서』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외에도 동남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외국지(外國誌)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이 네 정사의 기록이 가장 자세한 편이며, 나머지의 기록은 이들과 대동소이한 편이므로, 일일이 다루지 않았다. 이들 제외된 사료들은 별도의 기회에 다시 상세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한편 이들 중국측 사료의 내용은 중국 정사의 경우 중화중심적인 기조로 서술된 것이거나, 혹은 『집신주삼보감통록』와 같은 불교사료의 경우 불교적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어서 그 자체가 곧 동남아시아 문화의 실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사료를 통해 중세 동남아시아 문화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 (사)한국미술사연구소,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indijoo@hanmail.net

『남제서』는 양대(梁代)에 소자현(蕭子顯)이 저술한 것이다. 원제는 『제서(齊書)』였으나 북송대부터 『남제서』로 공식적으로 부르기 시작되었다고 하며, 저자인 소자현은 남제 종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의 역사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도 배제할 수 없으나, 궁내의 은밀한 사항까지 묘사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그만의 이점도 지니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나라의 신하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남제의 멸망원인을 내부적 요인에서 찾는 등 객관적인 입장도 발견할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특히 동남아시아 관련 기사는 앞서의 『송서』에서는 ‘서남이’라는 다소 애매한 개념 속에서 다루어졌으나, 『남제서』에서는 「외국전」 ‘만·동남이전’ 중에서 ‘남이’의 범주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후 『양서』의 ‘해남제국’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중간적 개념으로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²⁾

『양서』는 당태종 때 요사렴(姚思廉, 557~637)이 양·진·수 세 왕조에 봉직하였던 그의 부친 요찰(姚察, 533~606)이 작업하던 편찬을 이어받아 635년에 완성한 사서이다. 여기서는 「제이전(諸夷傳)」을 해남, 동이, 서북제육의 셋으로 구분한 가운데 특히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룬 해남 부분을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이 지역 문화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³⁾

『구당서』는 후진(後晉) 개운(開運) 2년(945) 재상 유후(劉煦)의 주도로 편찬되었다. 원래 는 『당서』였으나 북송대 구양수(歐陽修) 등이 편찬한 『신당서』와 구별하기 위해 『구당서』로 불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열전」 ‘남만·서남만전’에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구당서』의 편찬자들은 이민족을 비하하는 성향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인 서술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음악지」에서 다양

1) 김유철·하원수 역(2010, 21)

2) 김유철·하원수 역(2010, 22)

3) 김유철·하원수 역(2010, 133)에서 인용하자면 베트남 중남부 참파족의 임읍, 캄보디아의 힌두화된 부남국, 말레이 반도에 3~7세기 무렵 존재했던 반반국 및 간타리국, 말레이시아 킬란탄주의 단단국 및 케다주의 냥아수국, 인도네시아 자바의 파리국, 인도 중천축국, 스리랑카 사자국 외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양에 보낸 국서의 내용은 당시 불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남조정권과 동남아시아 지역 사이의 관계를 분식하고 있었는지를 뚜렷이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악무를 소개한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⁴⁾

『신당서』는 『구당서』의 내용이 당말의 전란으로 인하여 소실된 사료가 많아 장경(長慶 : 821~ 824) 이후로는 누락된 내용이 많고, 의례(義例)에 순서가 없으며, ‘열전’과 ‘지’에 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구양수(歐陽修)·송기(宋祁) 등이 북송 연력(慶歷) 4년(1044)부터 가우(嘉祐) 5년(1060)에 걸쳐 편찬한 것이다.⁵⁾ 그러나 기존의 문장을 고문체로 압축하면서 오히려 누락된 부분과 오류가 발생하여 오진(吳縝)이 원우(元祐) 4년(1089) 『신당서구류(新唐書糾繆)』 20권을 지어 그 단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당서』의 동남아시아 관련 기록은 『구당서』 『열전』 ‘남만’조에서 남조만(南詔蠻)으로 다루어지던 남조를 확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는 지금의 운남지역의 민족과 풍속에 관해 번작(樊綽)이 저술한 『만서(蠻書)』를 참조한 것으로서 이 지역에 관한 가장 상세한 사료로서 의미가 크다.

본고에서 참조한 정사의 번역문은 모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출판된 자료총서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마도 이 자료들은 동남아시아 연구자들에게도 지대한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II. 중국정사에 기록된 동남아 불교문화 관련사료

2.1 『남제서』 「만·동남이전」

2.1.1. 사료 A-1.

【임읍】 중국에서는 ‘자마금’이라 하는데 이인(夷人)들은 ‘양매’라 불렀으므로… 임읍에는 금산이 있는데, 금즙이 물가로 흘러든다. 니건도(尼乾道, Nirgrantha)를 신봉하여 금과 은으로 된 사람의 형상을

4)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2011: 24-25).

5)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한 『구당서』의 자료 부실과 오류가 문제였다기 보다는 『구당서』가 사실의 기록에 치중하면서 당왕조의 흥망성쇠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점 등이 실질적으로 『신당서』를 편찬하게 된 동기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2011: 21-22).

주조하였는데, 크기가 10위 정도였다. … 그 금인(金人)을 녹여 황금
수만근을 얻었고…⁶⁾

우선, 자마금은 불상을 도금하는데 사용했던 상품의 금으로서 그에 대한 입읍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금이 풍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중부⁷⁾에서 제작된 금동불에는 자체 지역에서 생산된 금을 사용해 도금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로 올라가는 연대에 제작된 금동불상은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대략 7~8세기경에 제작된 Go Xoai 출토 금동제 장신구를 통해 양매라 불렀던 금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⁸⁾ [그림 1] 다음에 나오는 기사는 금이 풍부했기 때문에 금으로 이러한 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금은상은 유물로서 발견된 바 없지만, 베트남 지역에서 발굴되는 많은 금제 유물들은 당시 풍부했던 입읍 출토의 이러한 금으로 제작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참고로 니건도는 ‘니르그란타(Nirgrantha)’의 음역이며, 인도에서 고행을 위주로 수행했던 외도의 일파의 의미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이나교의 교주인 Nigaṅṭha Nātaputta(Nirgrantha Jñātaputra)를 지칭하여 자이나교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의 니건도는 자이나교도나 특정한 외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불교를 제외한 인도의 다른 종교들을 통칭하



<그림 1>
금제 장신구,
베트남 Go Xoai 출토,
Long An Museum,
7~8세기경.

6) 원문은 다음과 같다. “宋永初元年, 林邑王范楊邁初産, 母夢人以金席藉之, 光色奇麗. 中國謂紫磨金, 夷人謂之楊邁, 故以爲名. 楊邁死, 子立, 慕其父, 復改名楊邁. 林邑有金山, 金汁流出於浦. 事尼乾道, 鑄金銀人像, 大十圍. 元嘉二十二年, 交州刺史檀和之伐林邑, 楊邁欲輸金萬斤, 銀十萬斤, 銅三十萬斤, 還日南地. 大臣僧達諫, 不聽. 和之進兵破其北界犬戎區栗城, 獲金寶無, 毀其金人, 得黃金數萬斤, 餘物稱是. 和之後病死, 見胡神爲. 孝建二年, 始以林邑長史范龍跋爲揚武將軍.”(밑줄은 본문 인용 부분)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2011: 42).

7) 林邑의 위치 및 다른 문헌에서의 용례에 대해서는 陣佳榮·謝方·陸峻嶸(2002: 493-496).

8) Go Xoai 유적에 대해서는 Nancy Tingley etc(2009: 162).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 사료에 대한 번역문에서는 크기단위인 위(圍)를 “아름”으로 해석해서 10위를 열 아름, 혹은 열 사람이 둘러싸거나 껴안을 정도의 크기로 번역했으나, 여기서는 ‘아름’이 아니라 ‘뿔’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1뿔=1위를 8촌 정도로 보았을 때⁹⁾, 남조의 척도로 1척=25cm로 환산하여 8촌이면 20cm이고, 다시 10위=80촌=2m의 상이 된다. 이는 금은상의 크기로는 매우 거대한 상이다.¹⁰⁾ 따라서 높이 10위의 금은상도 힌두신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녹여서 금수만근이 나왔다고 했으므로, 최소 1만근이라고 했을 때 이를 남조의 형제(衡制: 1근 약250g)로 보면 2,500kg의 금이 추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금의 밀도는 $19.3g \cdot cm^{-3}$ 이며, 구리의 밀도는 $8.96g \cdot cm^{-3}$ 으로 두 배 이상 무겁다. 따라서 구리로 만든 불상으로 환산하면 그 절반인 1,250kg, 즉 1.25톤짜리 불상 한 구의 무게와 맞먹는 크기였다는 의미가 된다.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8톤이며 높이가 6.5m이므로 이를 속이 비어있는 조각상의 “무게:높이”의 비의 표면적 비율로 환산하면 무게 1.25톤의 조각상은 무게 차이가 6.4배 가벼우므로 높이는 대략 2.52배 차이가 나서 2.58m 정도가 산출될 것이다. 이때 불상의 두께 등을 고려하면 높이 2m 크기의 금상을 녹여서 약1만근의 금을 추출한다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2.1.2. 사료 A-2.

【임읍】 왕은 부처의 관과 같은 천관(天冠)을 쓰고, 몸에는 향기 나는 영락을 걸쳤다. …사군(師君)을 바라문이라 하였다.¹¹⁾

일반적으로 부처는 관을 착용하지 않는데, 여기서 부처의 관(佛冠)이라고 한 것과 더불어 영락을 걸친 모습을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도 보

⁹⁾ 1위를 대략 8촌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우태(1984: 26).

¹⁰⁾ 신라 삼보의 하나인 天賜玉帶 역시 길이가 10위였다고 전한다(長十圍). 이것 역시 열사람이 손을 맞잡은 둘레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 위에서 추정된 바와 같이 대략 2m 가량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의 벨트 크기로는 너무 긴 것이지만, 이는 신성한 권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요대보다 크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¹¹⁾ 원문은 “王服天冠如佛冠, 身被香纓絡... 講師君爲婆羅門.”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 (2011: 44).

살상의 모습과 유사했다는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아울러 보살의 복식은 인도 귀족·장자의 복식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임읍 지배계급의 복식이 인도문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니건도를 신봉한데 이어 교단의 사제를 브라만으로 불렀다는 것을 통해 앞서 언급한 니건도가 브라만교를 지칭하는 것이었을 가능성과 함께 당시(4세기전반)에 베트남 중부지역에서는 브라만교가 신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3. 사료 B-1.

【부남】 부남왕의 성은 교진여이고 이름은 사야발마로서 상인과 상품을 광주까지 보내 교역하였다. 천축의 승려 나가선이 화물선을 빌어 (중국에서) 귀국하다가 풍랑을 만나 임읍에 이르러 그 재물을 모두 빼앗겼다. 나가선은 사이길을 통해 부남에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가 교진여왕에게) 중국에(서는) 성스러운 군주가 천명을 받았다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영명2년(484) 사야발마가 천축의 승려 나가선을 보내 표를 올리며 스스로를 ‘부남국왕교진여’라 칭하고 말하기를… 또 (교진여가) 말하기를 “신이 전에 사신을 보내 잡다한 물건을 싣고 광주에 가서 무역을 하였습니다. 천축의 승려 석 나가선이 광주에서 신들의 선박에 편승하여 부남으로 오려고 하였는데,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임읍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임읍의) 국왕이 신의 화물과 나가선의 개인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나가선이) 중국에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폐하의 성스러운 위덕과 인자로운 다스림을 우러르며 니열하였습니다… 교화를 행하시고, 불법이 흥성하며, 많은 승려가 모여들며 불교행사가 날로 성행하며… 신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뛰고 환희에 찬 마음이 잠시나마 마치 폐하의 자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지금 이 승려 나가선을 사신으로 보내어 표문을 올려 가르침을 청하며… (임읍을) 다 평정하면 표를 올리고 금으로 된 바라 다섯을 바치겠습니다… 함께 금루용왕좌상 1구, 백단상 1구, 상아로 만든 탑 2구, 고패 2쌍, 유리소립 2구, 대모로 장식한 빈랑 쟁반 1매를 봉헌합니다.¹²⁾

12) 원문은 “扶南王姓僑陳如，名耶跋摩，遣商貨至廣州。天竺道人那伽仙附載欲歸國，遭風至林邑，掠其財物皆盡。那伽仙聞道得達扶南，具說中國有聖主受命。永明二年，耶跋摩遣天竺道人釋那伽仙上表稱扶南國王臣僑陳... 又曰：臣前遣使齎雜物行廣州貨易，天竺

부남(캄보디아 푸난)왕의 성은 교진여인데,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교진여’의 원음이 Kondanna임을 미루어보면 아마도 그와 유사한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¹³⁾, 인도승려 나가선은 나가세나(Nāgasena)와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¹⁴⁾ 484년에 인도 승려가 부남과 중국 제나라를 연결해주는 사절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며, 더불어 앞서 설명한 브라만교를 믿었던 입읍이 표류한 나가선을 공경하지 않고 약탈한 것을 통해 입읍의 불교도들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부남이 중국에 보낸 ‘금루용왕좌상’은 ‘용왕의 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坐像’이 ‘座像’의 오기라고 한다면 용왕좌에 앉은 부처의 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용왕상’이 맞다고 한다면 아마도 캄보디아의 건국 설화에 나오는 나가(Naga), 즉 코브라신으로서 아마도 부남국의 상징으로서 보내진 것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용왕좌 불상의 현존하는 이른 사례는 태국의 9~10세기경으로 연대가 내려오지만[그림 2], 인도에 서는 불전도에 등장하는 이른 시기의 사례도 드물게 보이는 만큼 용왕좌 석가상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¹⁵⁾



<그림 2>
용왕좌 석가좌상, 태국 아유타야 주 왓 프라두 송탐 출토, 9~10세기, 방콕국립 박물관 소장.

道人釋那伽仙於廣州因附臣舶欲來扶南，海中風漂到林邑，國王奪臣貨財，并那伽仙私財。具陳其從中國來此，仰序陛下聖德仁治，詳議風化，佛法興顯，衆僧殷集，法事日盛，王威嚴整，朝望國軌，慈愍蒼生，八方六合，莫不歸伏。如聽其所說，則化鄰諸天，非可爲喻。臣聞之，下情踊悅，若暫奉見尊足，仰慕慈恩，澤流小國，天垂所感，率土之民，並得皆蒙恩祐。是以臣今遣 此道人釋那伽仙爲使，上表問訊奉貢... 平蕩之日，上表獻金五婆羅。今輕此使送臣丹誠，表所陳啓，不盡下情。謹附那伽仙并其伴口具啓聞。伏願愍所啓。并獻金鏤龍王坐像一軀，白檀像一軀，牙塔二軀，古貝二雙，琉璃蘇釵二口，玳瑁檳榔料一枚。”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2011: 48-50).

13) 『梁書』에서는 교진여를 천축의 바라문 출신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2011: 161) 기사 참조.
14) 나가세나는 북인도를 점령한 그리스의 메난드로스왕과 교리적 문답을 나눈 승려로서 그 이야기를 다룬 『밀린다광하』의 주인공이다. 『밀린다광하』는 『미란타왕문경』 혹은 그의 이름을 음역하여 『나선비구경』이라고도 한다.
15) 이 작품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2011: 15) 도판해설 참조)

백단상은 전단나무로 만든 불상인데, 중국에서는 우전왕전단상이 잘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역시 우전왕이 만든 진용상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양무제가 천감2년(503년)에 인도의 사위성에 가서 모사해왔다는 우전왕상보다 앞서 남중국에 전해진 우전왕상일 것이다.¹⁶⁾ 만약 양무제가 이 상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인도로부터 들여온 것이라면, 이러한 인식에는 20년 정도 전에 들어온 이 백단상이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양무제가 파견한 사절이 우전왕상을 옮겨올 때 바다를 건너왔다고 했



<그림 3>
목조여래입상, 6세기, Binh Hoa 마을 출토, 호치민 역사박물관 소장.

으므로, 인도-동남아-남중국으로 이어지는 우전왕상의 전파루트를 고려해볼 수 있다.¹⁷⁾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6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베트남 출토의 목조여래입상 등은 사료에 등장하는 백단상이 대략 어떤 모습이었는지 짐작케 한다.¹⁸⁾ [그림 3] 연대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 목조여래입상은 사료에 등장하는 백단상이 대략 어떤 모습이었는지 짐작케 한다. 오른손으로는 시무외인, 혹은 설법인을 하고 있고, 왼손으로는 옷자락을 쥐고 있는 모습은 이미 카니시카왕 주화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도상이다. 아마도 이러한 목조각상이 북송대에 만들어진 세이료지 목조우전왕상과 같은 조형성의 먼 기원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 당대에는 우전왕상이 의좌상 도상으로 유행했으므로, 이 백단상이 우전왕상을 의도한 것이라면 의좌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의좌상로서는 6~7세기 무렵의 석조의좌상도 발견되고 있다.[그림 4]

한편 불상외에 중국에 보낸 문물 중에는 유리소립도 포함되어 있는

16) 이에 대해서는 『집신주삼보감통록』 중권 28항 참조.

17) 우전왕설화의 남조적 특징에 대해서는 소현숙(2008) 참조.

18) 이 상에 대해서는 강희정(2011: 204) 참조.

데, 이러한 유리제품은 로마에 이어 소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도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유리목걸이와 같은 유리제품도 출토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유리제품을 중국에 보냈던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

부남왕은 제나라에 힌두교를 믿는 임읍을 공격해주거나 혹은 부남이 임읍을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제나라와 부남이 함께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임을 통해 두 나라간의 어떤 동질성을 보여주려고 했음을 엿볼 수 있다.

2.1.4. 사료 B-2.

【부남】 나가선이 경사에 와서 그 나라 풍속에 마혜수라천신을 신봉하는데 신이 항상 마탐산에 강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교진여가) 상서하여 다 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선스러운 산이 있으니 마탐이라고 이름하는데... 마혜수라천이 이곳에서 존귀한 신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보살로서 용서하고 자애로움을 행하시니 이 자리에 흔적을 보여서 평범한 근기(根基)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한번 보리심(菩提心)을 발하시니, 이승(二乘)으로부터는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몇 생을 걸쳐 공덕을 쌓으셔서, 육바라밀로 대비(大悲)를 행하십니다. 용맹으로 정진하는 것이 몇 겁을 넘어서니, 재산과 생명도 버리셔서 남김이 없으십니다. 생사(生死)도 싫증내지 않으시니, 육도(六道) 어디에서도 인연있는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십지의 경지에 이르셔서 그 결과로 인도와 천도를 건너시게 되었습니다...19)



<그림 4>
불의좌상, 6~7세기경, 베트남 Tra Vinh 지역 출토, 높이:57.2cm, 호치민시 Fine Arts Museum



<그림 5>
유리제 목걸이, 기원전5~기원후 1세기경, 하노이 국립베트남역사박물관.



<그림 6>
시바입상, 8세기경, 베트남 My Son C1 출토, Da Nang museum of Cham Sculpture, 높이 246cm

부남국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마혜수라친신 신앙을 엿볼 수 있다. 마혜수라는 원래 시바신인데, 여기서는 보살의 하나로서 신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남 지역에서의 힌두신앙과 불교신앙의 결합양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십지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엄계통의 사상이 5세기 후반에 캄보디아에 전해져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²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시바신상의 사례로는 베트남 My Son 출토의 8세기경 사례를 들 수 있다.[그림 6]

2.2 『양서』 제이전

2.2.1. 사료 A.

【임읍】 그 왕은 법복을 입고 구슬목걸이를 하는데, 마치 불상의 장식과 같다.

… 그 대성은 바라문이라 부른다. …국왕은 니건도를 받들었으며, 금을 녹여 사람의 형상을 주조하였는데, 그 크기가 10위(圍)나 되었다.²¹⁾

앞서 살펴본 『제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19) 원문은 다음과 같다. “那伽仙詣京師, 言其國俗事摩醯首羅天神, 神常降於摩耽山, 土氣恒暖, 草木不落. 其上書曰: 吉祥利世間, 感攝於群生. 所以然者, 天感化緣明. 仙山名摩耽, 吉樹敷嘉榮. 摩醯首羅天, 依此降尊靈. 國土悉蒙祐, 人民皆安寧. 由斯恩被故, 是以臣歸情. 菩薩行忍慈, 本跡起凡基. 一發菩提心, 二乘非所期. 歷生積功業, 六度行大悲. 勇猛超劫數, 財命捨無遺. 生死不爲狀, 六道化有緣. 具脩於十地, 遺果度人天. 功業既已定, 行滿登正覺. 萬善智圓備, 惠日照塵俗. 衆生感緣應, 隨機授法藥. 佛化遍十方, 無不蒙濟擢. 皇帝聖弘道, 興隆於三寶. 垂心覽萬機, 威恩振八表. 國土及城邑, 仁風化清皎. 亦如釋提河, 衆天中最超. 陛下臨萬民, 四海共歸心, 聖慈流無疆, 被臣小國深.” 김유철·하원수 역(2010: 53). 밑줄친 부분이 인용 부분.

20) 우리나라에서의 마혜수라, 즉 대자재천 도상과 인도에서의 기원에 대해서는 김정희(2008) 참조.

21)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其王著法服, 加瓔珞, 如佛像之飾... 其大姓號婆羅門... 國王事尼乾道, 鑄金銀人像, 大十圍.” 김유철·하원수 역(2010: 149).

2.2.2. 사료 B-1.

【부남】 기후와 풍속은 크게 견주어 입읍과 같다. 금, 은, 동, 주석, 침 목향, 상아, 공작, 오색앵무가 난다. …부남국의 풍속은 본디 나체에 문신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의상을 만들지 않았다. 여인을 왕으로 삼았는데 유엽이라 하였다… 그 남쪽 변세의 나라에 귀신을 섬기는 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혼전이라 하였다… 혼전이 이에 유엽에게 베에 머리를 끼울만한 구멍을 뚫어 입을 방법을 가르쳐 다시는 몸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손오 시기에 중랑 강태와 선화종사 주옹이 범심의 국에 사자로 보내졌는데, 국민들은 벌거벗은 거나 다름없고, 오직 부인들만이 관두(貫頭)를 입었을 뿐이었다. 강태와 주옹이 말하여 이르기를 “나라 안이 실로 아름다운데 단지 사람들만이 무릅없이 드러내놓고 다니니 참으로 괴이합니다”라고 하였다. 범심이 비로소 영을 내려 국내의 남자들에게 횡폭(橫幅)을 입게 하였다. 횡폭은 지금의 간만이다.²²⁾

부남에서 산출되었던 다양한 광물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금, 동, 주석은 모두 금동불상 재료로서 중요한 것이고, 상아나 침옥향도 역시 불상 및 불교공예품의 재료로 애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금동불상은 대체로 풍부한 토산 광물을 사용하여 만들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남 사람들이 옷을 입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여자들의 옷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어 남자들의 옷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 만들어 입은 옷은 마치 판초우의(poncho)처럼 네모난 천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뚫은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여성의 복식이었고, 이어 남성들이 ‘간만’이라는 옷을 만들어 입게 된 내역을 기술하였다.²³⁾ 결국 부남의 남자들이 옷을 입게 된 것은 중국사신들의 지적 때문이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22) 원문은 “氣候風俗大較與林邑同 出金銀銅錫木香象牙孔翠五色鸚鵡... 扶南國俗本體文身被髮, 不制衣裳. 以女人爲王, 號曰柳葉. 年少壯健, 有似男子. 其南國, 有事鬼神者字混填, 夢神賜之弓, 乘賈人舶入海, 混填u晨起即詣廟, 於神樹下得弓, 便依夢乘船入海, 遂入扶南外邑. 柳葉人衆見舶至, 欲取之, 混填即張弓射其舶, 穿度一面, 矢及侍者, 柳葉大懼, 舉衆降混填. 混填乃教柳葉穿布貫頭, 形不復露, 遂治其國, 納柳葉爲妻... 吳時, 遣中郎康泰·宣化從事朱應使於尋國, 國人猶裸, 唯婦人著貫頭. 泰應謂曰 國中實佳, 但人褻露可怪耳. 尋始令國內男子著橫幅. 橫幅, 今干漫也.” 김유철·하원수 역(2010: 153-160). 干漫에 대해서는 주수완(2010: 77-79) 참조.

23) ‘간만’, 즉 캄발라(kambala)에 관해서는 주수완(2010: 77-79) 참조.

알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는 중국문화권과의 접촉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2.3. 사료 B-2.

【부남】 왕인 교진여는 본디 천축의 바라문이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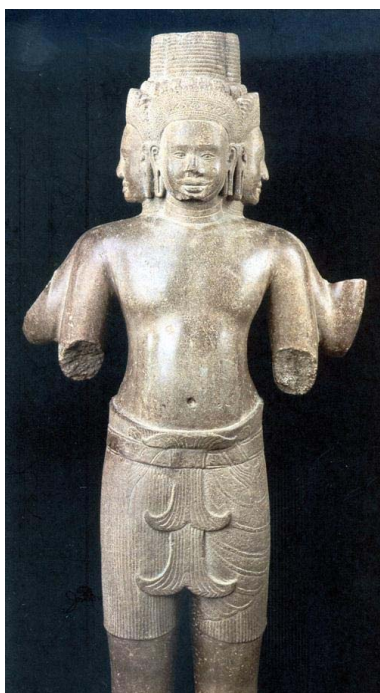
이를 통해 『제서』에서 언급된 교진여왕이 왜 인도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2.4. 사료 B-3.

【부남】 천감2년(503)에 사야발마가 다시 사자를 보내면서 산호로 만든 불상을 보내고 아울러 방물을 바쳤다. …천신을 섬기는 풍속이 있다. 동으로 천신의 상을 만드는데, 얼굴이 돌이면 손이 넷이고, 얼굴이 넷이면 손은 여덟이다. 손에는 각기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아이, 혹은 새와 짐승, 혹은 해와 달이다.²⁵⁾

교진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야발마도 양나라에 불상을 보냈는데, 이어 부남은 천신을 섬긴다고 하여 불교국가인 부남에 대한 앞선 기술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나가선 비구가 부남에서는 마혜수라천신을 섬긴다고 하였고, 그것이 보살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천신은 불교에서의 대자재천일 것이다. 특히 대자재천의 도상연구에 중요한 묘사가 있어 주목된다. 이는 다면다비의 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동남아 보살상에서 다면을 지닌 상은 이른 시기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10세기경에 이르면 브라만 신상에서 다면의 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캄보디아 Mongkol Borei 출토의 브라만 입상은 3면의 얼굴을 지니고 있고, 두 쌍의 팔을 지니고 있다.[그림 7] 사료의 천신의 상은 팔이 4쌍이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드물다. 다비의

24) “其後王橋陳如，本天竺婆羅門也.” 김유철·하원수 역(2010: 161).
25) 원문은 “天監二年，跋摩復遣使送珊瑚佛像，并獻方物... 俗事天神，天神以銅爲像，二面者四手，四面者八手，手各有所持，或小兒，或鳥獸，或日月.” 김유철·하원수 역(2010: 162).



<그림 7>
 브라만 입상, 10세기, 캄보디아
 Mongkol Borei.



<그림 8>
 비슈누 입상, 9세기전반,
 프랑스 기메박물관

상은 5세기 등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는데, 주로 비슈누, 두르가 등이 두 쌍의 팔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관음보살인 로케슈바라상에 서 많이 발견된다. 아마도 부남의 천신상은 이러한 상들과 유사한 형태였을 것이다.[그림 8]

2.2.5. 사료 B-4.

【부남】 천감18년(519)에 다시 사자를 파견하여 천축에서 만든 전 단향목으로 조각한 석가모니상과 보리수잎을 보내왔으며, … 대동5년(539)에 다시 사자를 보내 살아있는 무소를 바쳤다. 또 말하기를 그 나라에 부처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길이가 1장2척이라 하였다. 이에 조를 내려 사문 석운보에게 사자를 따라가서 맞아오게 하였다.²⁶⁾

²⁶⁾ 원문은 “十八年，復遣使送天竺檀瑞像 婆羅樹葉… 又言其國有佛髮，長一丈二尺，詔遣沙門釋雲寶隨使往迎之.” 김유철·하원수 역(2010: 163).

전단향목 석가상의 기사는 앞서 484년에 보낸 백단상에 이어 두 번째 목불상 관련기사이다. 그런데 이 상은 부남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만든 상을 부남이 입수하여 다시 중국에 보낸 상으로서 인도 불상의 중국전래에 있어 동남아시아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와 함께 부남국에 불발사리, 즉 석가모니의 머리카락과 그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양나라 때에 이 불발을 중국으로 옮겨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이전부터 중국에 전해졌던 불발에 대한 기사가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다.

2.2.6. 사료 B-5.

【부남】 후한의 환제 연희 9년(166)에 대진 왕 안돈이 사자를 보내 일남군 요외로부터 와서 공헌하였는데, 한대를 통틀어 오로지 한번 통한 것이다. 대진의 국민들은 행상하여 왕왕 부남과 일남 그리고 교지에 이르지만, 남요의 제국인 가운데 대진에까지 이르는 자는 드물다. 손권 황무 5년(226)에 대진의 상인으로 자를 진론이라고 하는 자가 교지에 이르렀는데 교지태수 오막이 경사로 호송하여 손권에 이르도록 하였다. 손권이 그 나라의 풍속과 관습을 물으니… 후한 환제 시기에 천축이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공헌하였는데, 나중에 서역이 이반하여 마침내 교통이 끊겼다. 환제 시기에 이르러 연희2년(159)과 4년(161)에 자주 일남군 요외로부터 와서 공헌하였다. 조위 시기와 진 시기에는 끊어져서 다시 통하지 못하였다. 오직 손오 시기에 부남왕 법전이 가까이 신임하는 소물이라는 이를 천축국에 사자로 보냈다. 부남의 투구리 입구로부터 출발하여 바다의 큰 만을 따라 정서 북쪽으로 들어가 만 주변의 여러 나라를 거쳐 갔는데, 1년여가 지나서야 천축강 입구에 닿을 수 있었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7천리를 가서 도착하였다. 천축왕이 놀라 말하기를 “바다의 끝은 지극히 먼데도 이런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고 하였다. 즉시 불러서 국내를 시찰하도록 하고, 이윽고 진과 송 두 사람을 파견하여 월지마 네필을 가지고 가서 법전에게 보답하도록 하였다. 소물 등을 보내 돌아가게 하였는데, 네 해를 채우고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 오에서는 중랑 강태를 부남에 사자로 보냈다. [강태가] 진과 송 등을 보고, 천축의 토속을

물으니, “불도(佛道)가 일어난 나라(國)입니다. 인민이 많은데다 부유하고, 토지는 넓고 비옥합니다. 그 왕의 호칭은 무론(茂論)입니다. 도읍은 성곽을 둘렀는데, 물이 샘에서 갈라져 흘러 도랑과 해자를 채우고 큰 강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 궁전은 모두 무늬를 새겼으며, 성내의 거리와 마을은 옥사(屋舍)와 누관(樓觀)으로 가득찼고, 종소리와 북소리(鐘鼓) 음악이 넘쳐나며, 의복과 장식은 향기롭고 화려합니다. 물길과 물길의 교통이 편하여 온갖 상인들이 모여 교역하니, [아무리] 기이한 노리개나 진보(珍寶)라 도 갖고자 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가유(嘉維) 사위(舍)140) 엽파(葉波) 등 열여섯 대국은 천축으로부터의 거리가 혹 이삼 천리인데, 모두 천축국을 귀히 여겨 받들며, 천지의 중심으로 여깁니다”라고 말하였다.²⁷⁾

이 기사는 『양서』에서 잠시 뒤에 기술한 파리국 보다 나중에 실려 있는 ‘중천축국’조에 나오는 것이지만, 부남과 연관이 있으므로 먼저 다루고자 한다. 이 기사를 통해 삼국시기에 로마의 사절 및 상인들이 부남을 통해 중국과 교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인도는 로마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21~180)를 지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역의 나라들도 중국과의 교통로가 혼란한 시절에는 부남을 통해 중국과 통교하고 있었음을 전해준다. 아울러 오나라 시기에 소물(蘇物)이 이끄는 부남의 사절이 인도를 방문했던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법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도를 방문한 사례여서 주목된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도에 대한 정보를 부남에 와서 물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로서는 국제적으로 매우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당시 인도는 쿠산제국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27) “漢桓帝延熹九年, 大秦王安敦遣使自日南徼外來獻, 漢世唯一通焉. 其國人行賈, 往往扶南·日南·交趾, 其南徼諸國人少有到大秦者. 孫權黃武五年, 有大秦賈人字秦論來到交趾, 交趾太守吳邈遣送詣權, 權問方土謠俗, 論具以事對. 時諸葛恪討丹陽, 獲黠猓人, 論見之曰 大秦希見此人. 權以男女各十人, 差吏會稽劉咸送論, 咸於道物故, 論乃徑還本國. 漢和帝時, 天竺數遣使貢獻, 後西域反叛, 遂絕. 至桓帝延熹二年, 四年, 頻從日南徼外來獻. 魏·晉世, 絕不復通. 唯吳時扶南王范旃遣親人蘇物使其國, 從扶南發投拘利口, 循海大灣中正西北入歷灣邊數國, 可一年餘到天竺江口, 逆水行七千里乃至焉. 天竺王驚曰 海濱極遠, 猶有此人. 即呼令觀視國內, 仍差陳·宋等二人以月支馬四匹報旃, 遣物等還, 積四年方至. 其時吳遣中郎康泰使扶南, 及見陳·宋等, 具問天竺土俗, 云佛道所興國也. 人民敦龐, 土地饒沃. 其王號茂論. 所都城郭, 水泉分流, 繞於渠漚, 下注大江. 其宮殿皆雕文鏤刻, 街曲市里, 屋舍樓觀, 鐘鼓音樂, 服飾香華, 水陸通流, 百賈交會, 奇玩珍瑋, 恣心所欲. 左右 嘉維·舍衛·葉波等 十六大國, 去天竺或二三百里, 共尊奉之, 以為在天地之中也.” 김유철·하원수 역(2010: 190-191).

갠지스 강을 따라 파탈리푸트라로 들어가는 여정을 언급한 듯 하다. 또한 월지마란 월지의 말이란 뜻이므로, 월지족, 즉 쿠산족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²⁸⁾ 사료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부남국에 불법이 전해진 시기도 이 시기 무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왕의 호칭을 ‘무론(màolùn)’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후시 인도의 왕들이 주로 사용했던 ‘마하라자(maharajah)’를 음역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2.7. 사료 C.

【반반】 대통 원년(527)에 그 왕이 사자에게 표를 받들게 하여 말하기를… 중대통 원년(529) 5월에 누차 사자를 보내 상야로 새긴 불상과 탑을 공헌하였으며, 아울러 침단 등의 향 수십 종을 바쳤다. 6년(534) 8월에 다시 사자를 보내 보리국의 진사리 및 탑 그림을 보내왔으며, 아울러 보리수 잎과 침당 등의 향을 공헌하였다.²⁹⁾



<그림 9>
새겨진 마하보디대탑, 쿠산시대,
University Museum, Aligarh

반반국은 부남 남쪽 말레이반도에 있었던 고대국가인데, 역시 불교를 신봉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나 부다가야로 추정되는 곳에서 기원한 진신사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탑 그림은 어쩌면 보드가야 대탑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다가야 대탑은 많은 불교도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

28) 월지와 쿠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타니 나카오(2008) 참조.

29) “大通元年，其王使使奉表曰… 中大通元年五月，累遣使貢牙像及塔，并獻檀等香數十種。六年八月，復使送菩提國真舍利及塔，并獻菩提樹葉·詹糖等香。” 김유철·하원수 역 (2010, 177). 여기서도 보리국은 보드가야로 추정된다고 각주에서 설명하고 있다. 보드가야는 원래 진신사리보다는 마하보디사원의 정각상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나, 인근 사원의 탑에는 진신사리가 봉안된 탑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하보디 사당은 동아시아 불탑형식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도상이 동남아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인도 힌두신전을 북부의 나가라(Nagara) 형식과 남부의 드라비다(Dravida) 형식으로 분류했을 때 보드가야 대탑은 남부 드라비다 형식에 속하는 것이고, 동아시아 불탑이 나가라 형식보다는 드라비다 형식에 가깝다는 점에서 불탑형식의 형성과정에서 이 보드가야 도상의 동남아시아를 통한 중국전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힌두사원의 형식분류에 대해서는 이주형 외(2007: 246-249 및 256-257).

어 다양한 방법으로 모사되었는데, 인도에는 모형조각도 있었고, 불상 대좌 아래에 새겨지기도 했다.³⁰⁾[그림 9] 탑 그림이라고 했으므로, 이러한 선각부조에 가까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2.2.8. 사료 D.

【단단국】 상아로 만든 불상 및 탑 각 2구씩을 보내고… 대동 원년(535)에 다시 사자를 보내 금, 은, 유리, 여러 보석, 향약 등의 물건을 공헌하였다.³¹⁾

단단국은 말레이시아 동북해안의 끌란탄주로 추정되는데, 반반국과 마찬가지로 상아로 만든 불상과 탑을 보내왔다. 그 외에는 유리제품도 보내온 점이 주목된다.

2.2.9. 사료 E.

【낭아수국】 남녀 모두 옷통을 벗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고패로 만든 간만을 입는다.³²⁾

이러한 복식은 <양직공도>의 낭아수사절 묘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간만, 즉, ‘캄발라’라고 하는 이 복식에 대해서는 의정의 “남해기귀 내법전”에서도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³³⁾

2.2.10. 사료 F.

【파리국】 감패라(蚌貝羅)라는 이름을 가진 돌이 있는데, 처음 깰 때는 유연하지만, 돌을 조각하여 물건을 만들어 말리면, 마침내 매우 견고하고 강해진다… 왕의 성은 교진여로… 백정왕의 부인이 곧 그 나라 출신 여인이라고 말하였다… 천감16년(517)에 사자를 보내 표를

30) 이에 대해서는 John Guy(1991) 참조.

31) “謹奉送牙像及塔各二軀，并獻火齊珠·古貝·雜香藥等。大同元年，復遣使獻金·銀·琉璃·雜寶·香藥等物。” 김유철·하원수 역(2010: 177).

32) “其俗男女皆袒而被髮，以古貝爲干。” 김유철·하원수 역(2010: 182).

33) 낭아수국 사절도의 복식에 대해서는 각주 23의 문헌 참조.

받들어 말하기를, “엎드려 받자옵건데 성왕께서는 삼보를 신앙하시고 존중하시어 불탑과 불사를 건립하시고 불상을 장식하신 것이 국토에 두루 퍼져있다고 합니다… 보통3년(522)에 파리의 왕 빈가가 다시 사자 주패지를 보내 흰 앵무, 청충, 투구, 유리기, 고패, 소라잔, 집향, 약 등의 수십 종을 공헌하였다.³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파리국에서 나온 돌에 관한 기사인데, 캐냈을 때는 부드러워 조각을 하기 유리하고,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서 점차 단단해진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석재의 조건으로 보인다. 혹시 신상조각에도 이러한 돌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상 석재에 대한 암석학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석가의 어머니 마야부인을 자신들의 나라 출신이라고 하는 것과 양에 보낸 표문에서 불법을 숭상함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역시 불교를 숭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헌물 중에 유리기가 포함되어 있다.

2.2.10. 사료 G.

【사자국】 동진 의희 연간(405~418)초에 비로소 사자를 보내 옥으로 만든 불상을 공헌하였는데, 10년을 걸려서야 겨우 도착하였다. 옥 불상의 높이는 4척 2촌이었는데, 옥의 색이 깨끗하고 윤기가 있으며, 만든 모양이 특수하여 아마도 인공이 아닌 듯 했다. 이 옥불상은 동진과 유송 양대를 거쳐 와관사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사원에는 이미 징사 대안도가 손으로 제작한 불상 5구와 고장강이 그린 유마힐 거사의 상이 있었는데 세인들은 이들 세 작품을 일러 삼절이라 하였다. 제의 동훈후 대에 이르러 마침내 옥불상을 훼손하였는데 먼저 옥상의 팔을 끊고 다음에는 몸을 취하여 애첩 반귀비를 위하여 비녀와 팔찌를 만들어주었다.³⁵⁾

34) “有石名蚌貝羅，初採之柔軟，及刻削爲物乾之，遂大堅強... 王姓陳如，自古未通中國。問其先及年數不能記焉，而言白淨王夫人即其國女也... 天監十六年，遣使奉表曰 伏承聖王信重三寶，興立塔寺，校飾莊嚴，周國土... 普通三年，其王頻伽復遣使珠貝智貢白鸚鵡青蟲兜鍪瑠璃器古貝螺杯雜香藥等數十種。” 김유철·하원수 역(2010: 184~186).

35) “晉義熙初，始遣獻玉像，經十載乃至。像高四尺二寸，玉色潔潤，形製殊特，殆非人工。此像歷晉·宋世在瓦官寺，寺先有徵士戴安道手製佛像五軀，及顧長康維摩畫圖，世人謂爲三絕。至齊東昏，遂毀玉像，前截臂，次取身，爲嬖妾潘貴妃作釵釧。宋元嘉六年，十二年，其王刹利摩訶遣使貢獻。” 김유철·하원수 역(2010: 195).

이 기사는 『고승전』 및 『역대명화기』에도 등장하는데, 그 본말이 더 상세하여 도움이 된다. 스리랑카의 옥은 특산물로 유명하여 스리랑카 안에도 많은 옥불상이 있었다. 특히 중국 남조에 남인도 불상 양식이 전래되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사인데, 그 유입경로상에 동남아시아가 있었다. 실제 동남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 혹은 남인도 아마라바티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그림 10], 이를 통해 이 기사가 구체적인 전거를 가진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³⁶⁾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화된 불상이 아니라, 남인도의 불상이 직접 중국에 전파되었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0>
 금동불입상, 스리랑카산
 (발견은 베트남 Dong Duong),
 8~9세기, 베트남역사박물관

2.3 『구당서』

2.3.1. 사료 A.

【임읍】 특히 불법을 믿어서 백성 중에 출가하는 이들이 많다.³⁷⁾

남북조 시대와 달리 당대에 와서는 임읍에서도 불교가 숭앙되고 있는 변화상을 알려준다.

2.3.2. 사료 B.

【반반국】 사람들이 모두 바라문서를 배우며, 심히 불법을 공경한

³⁶⁾ Nancy Tingley, 앞의 책, p.218에 의하면 태국의 Pong Tuk, 자바의 Sulawesi, 베트남의 Dong Duong 등지에서 빠르면 3세기, 늦으면 9세기 무렵의 이러한 남인도 혹은 스리랑카 양식 불상이 출토되고 있다고 한다.

³⁷⁾ “尤信佛法, 人多出家.”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2010: 478).

다.³⁸⁾

여기서 바라문서는 인도어를 배운다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속해서 불법이 승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 원어로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에 대한 이해도 깊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2.3.3. 사료 C.

【진랍】 본디 부남의 속국으로 곤륜의 부류이다. … 그 왕의 성은 찰리씨이다. … 이 나라는 불도와 천신을 숭상하는데, 천신이 가장 크고, 불도가 그 다음이다.³⁹⁾

부남에 이어 캄보디아를 주도했던 진랍이 기사에 등장하고 있다. 왕의 성이 찰리씨인 것은 보통 크샤트리아를 찰리종이라고 하므로,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불법도 믿기는 하지만, 부남과 달리 천신을 더 숭상하고 있다.

2.3.4. 사료 D.

【타원국】 정관21년(647)에 또 사자를 보내어 백앵무 및 파울고를 바쳤으며, 말과 동종을 요청하였다. 조(詔)를 내려 모두 지급하였다.⁴⁰⁾

태국 동부에 위치했던 나라인데,⁴¹⁾ 당 문물의 수입을 볼 수 있으며, 동종을 요청한 것이 흥미롭다.

2.3.5. 사료 E.

【표국】 불사(佛寺)가 100여곳 있다. 그 전당과 가옥은 모두 금과 은

38) “人皆學婆羅門書，甚敬佛法.” 김유철·하원수 역(2010: 482).

39) “本扶南之屬國，崑崙之類… 其王姓刹利氏… 國尚佛道及天神，天神爲大，佛道次之.” 김유철·하원수 역(2010: 483).

40) “二十一年，又遣使獻白鸚鵡及婆律膏，仍請馬及銅鐘，詔並給之.”

41) 김유철·하원수 역(2010: 485, 주21) 참조.

으로 장식하였고, 붉은색으로 칠하였으며, 땅에는 자줏빛 쇠돌을 깔고 그 위에 금계(錦闌)를 덮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일곱 살이 되면 삭발하고 절에 머물면서 불문에 귀의한다. 스무 살이 되어서도 불도의 이치를 깨치지 못하면 다시 머리를 기르고 평민이 된다... 정원18년(802)에 실리이를 보내어 남조를 따라 중역으로 내조하였으며, 또 그 나라의 악 모두 10곡과 악공 35인을 함께 바쳤다. 악곡은 모두 석가모니 경론의 사의를 연출하는 것이었다.⁴²⁾

티벳-버마계통의 민족이 세운 나라인 표국은 불교를 독실히 수행했으며, 불사건축이 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에 묘사된 표국 불사건축에 대한 내용은 현재의 동남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사원건축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푸른색 돌로 건물을 짓고, 자주색 돌로 바닥을 깔 예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이를 비교해보자면, 앙코르왓 사원의 경우 신전 자체는 회색빛 돌로, 담장은 붉은색 돌로 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색빛을 푸른빛으로, 붉은색을 자주색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었을까 추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그림 11] 또한 사료에 등장하는 유리기와는 아직 사례를 찾지 못했지만, 베트남에서 발견된 수막새 기와는 동아시아 수막새기와와의 유사성도 주목되며, 아마도 여기에 유약을 입혀 유리와로 불렸을 것이다.[그림 12] 7세부터 20세까지 불문에 귀의한다는 것은 이러한 불교사원이 사실상 학교의 역할도 했었



<그림 11>
앙코르왓 사원지의
두 종류 석재

42) “佛寺百餘區。其堂宇皆錯以金銀，塗以丹彩，地以紫礦，覆以錦闌... 男女七歲則落髮，止寺舍，依桑門，至二十不悟佛理，乃復長髮爲居人... 十八年，乃遣其弟悉利移因南詔重譯來朝，又獻其國樂凡十曲，與樂工三十五人俱。樂曲皆演釋氏經論之詞意。” 김유철·하원수 역(2010: 521-522).



<그림 12>
 수막새기와, 2~7세기경,
 지름 15.3cm, 호치민시
 베트남역사박물관

음을 짐작케 한다.

이어 표국의 불교음악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는 『신당서』 사료에서 다시 고찰하기로 하겠다.

2.4 『신당서』 「남만전」

2.4.1. 사료 A.

【남조】 고병은 그들의 풍속이 불법을 숭상함을 알고 승려 경선을 보내 사자의 직무를 대신하여 가게하니, 추룡과 그 부하들이 경선을 영접하여 절을 하였다.⁴³⁾

중국 운남성 서부의 옛 타이족 왕국인 남조가 불법을 숭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승려가 사절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는 추룡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축지역을 침입하여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회유하고자 고병이 한편으로는 군사행동을 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불교를 통해 화친을 도모했던 기록이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중국과 남조가 불교라는 공통의 종교를 매개로 음을 앞서 나가선의 기록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⁴⁴⁾

43) “駢以其俗尚浮屠法，故遣浮屠景仙攝使往，酋龍與其下迎謁且拜。”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2011: 954).

44) 서천절도사 高駢이 승려 景仙을 남만에 파견한 것은 乾符 3년(876)의 일이었다. 이

2.4.2. 사료 B.

【환왕】 불도를 좋아하여 금과 은으로 불상을 만드는데, 큰 것은 간혹 10圍만했다.⁴⁵⁾

환왕은 과거 임읍 지역인데, 이미 불법이 전해진 것은 구당서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브라만교를 믿었을 때 언급되었던 커다란 금상이 이번에는 불상으로 기술되고 있다. 과거 천신상의 기록이 불상으로 와전된 것인지, 아니면 임읍의 전통을 이어받아 환왕 사람들도 10위 정도 크기의 불상을 만들었던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위(圍)’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뼘 정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 자체로서는 큰 크기가 아니지만,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만든 불상으로서는 매우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2.4.3. 사료 C-1.

【표국】 푸른 색 벽돌로 둥근 성을 만들었는데, 둘레가 160리이고, 열 두 개의 성문이 있었으며, 네 귀퉁이에는 불탑(浮圖)을 지었다.… 천문에 밝고 불법을 좋아한다. 많은 사찰이 있다. 유리로 기와를 만들어 엮는데 금과 은으로 무늬를 놓는다. 또 붉은 빛 무늬가 있는 자주색 싯돌로 바닥을 깔고 비단 같은 융단을 덮는다. 왕의 거처 또한 이와 같다. 민이 7세가 되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절에 머무르는데, 20세가 되어도 불법에 통달하지 못하면 다시 민으로 돌아간다.… (당 덕종 정원연간에) [남조의 왕] 이모심(異牟尋)이 사자(使者) 양가명(楊加明)을 보내 김남서천절도사(劍南西川節度使) 위고(韋擧)에게 이르러 만이(蠻夷)의 가곡(歌曲)을 바치겠다고 청하고, 표국으로 하여금 악인(樂人)을 진상케 하였다. 이에 위고가 『남조봉성악』을 지었는데 황종의 운을 정률로 채택하였다. 궁과 징의 일변은 서남이 순복

사건 얼마 후 고병의 휘하에 최치원이 들어와 당시의 일을 조정해 보고하는 글을 작성하였는데, 그 글은 『桂苑筆耕集』 권2 「謝示南蠻通和事宜表」에 전하고 있다. 한편 『계원필경집』에는 고병이 관내의 승려 弘鼎을 승정으로 임명해달라는 조서를 올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자 사례하는 표를 올리기도 했는데(권4, 「奏請僧弘鼎充管内僧正狀」 및 「謝許弘鼎充僧正像」) 이렇듯 고병은 경산·홍정 등의 불교승려들을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45) “喜浮屠道，冶金銀像，大或十圍。”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2011, 983).

한 것을 형상화한 것이고 각과 우의 종변은 음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여섯곡의 안무가 완성되었는데 악공이 64인, 찬인이 두 사람에 서곡은 28첩이고 『남조봉성악』의 글자마다 춤을 만들었다. 춤꾼은 열여섯 사람인데 꼬리가 긴 꿩의 깃을 잡고 네명씩 열을 지어선다. ‘南’자를 형상화하여 춤을 출 때는 ‘성주는 無爲하여도 교화가 이루어지네’라는 노래를 부르고, ‘詔’를 춤출 때는 ‘남조가 입조하니 하늘이 즐거워하는도다’라는 노래를 부른다. ‘奉’을 춤출 때는 ‘사해와 우주의 모든 생물이 文化를 닦는구나’라고 노래부르고, ‘聖’을 춤출 때는 ‘황제의 은혜가 미치는 것이 한이 없구나’라고 노래부르며, ‘樂’을 춤출 때는 ‘영토를 넓혀 정령의 변세에까지 이르는구나’라는 노래를 부른다. 모두 1장 3첩으로 이루어져 있다…46)

구당서의 “표국” 해당 서술과 같고, 추가적으로 <남조봉성악>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위 인용문 뒤로 상세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구당서에서는 불교적 주제의 음악을 바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악은 이와는 별개의 것이며, 불교 주제의 음악은 다음 기사에서 보인다. 위 사료의 무용수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공작의 깃털을 잡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앙코르왓의 ‘유해교반’ 장면에서 등장하는 군무 장면의 춤추는 인물상들이 양손에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림 13>
앙코르왓 1회랑 동벽 남측, 유해교반(乳海攪拌) 부조, 12세기

46) “青甃爲圓城，周百六十里，有十二門，四隅作浮圖，民皆居中，鉛錫爲瓦，荔莖爲材。俗惡殺。拜以手抱臂稽顙爲恭。明天文，喜佛法。有百寺，琉璃爲甃，錯以金銀，丹彩紫礦塗地，覆以錦罽，王居亦如之。民七歲祝髮止寺，至二十有不達其法… 貞元中，王雍羌闕南詔歸唐，有內附心，異牟尋遣使楊加明詣劍南西川節度使韋皋請獻夷中歌曲，且令驃國進樂人。於是皋作南詔奉聖樂，用正律黃鍾之均。宮徵一變，象西南順也。角羽終變，象戎夷革心也。舞六成，工六十四人，贊引二人，序曲二十八疊，舞「南詔奉聖樂」字。舞人十六，執羽翟，以四爲列。舞「南」字，歌聖主無爲化。舞「詔」字，歌南詔朝天樂。舞「奉」字，歌海宇脩文化。舞「聖」字，歌雨露覃無外。舞「樂」字，歌關土丁零塞。皆一章三疊而成。”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2011: 1021-1024).

이런 공작의 깃털 같은 것을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그림 13] 그리고 네 명씩은 아니지만, 네 명, 다섯 명씩 그룹지어 있는 것은 사료에 묘사된 것과 대략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표국은 공작 깃털이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공작 깃털 대신 천 자락을 이용해 춤을 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2.4.4. 사료 C-2.

【표국】 무릇 악이 30종이고 악공이 196인이다. 4부로 나뉘는데 첫째가 구자부, 둘째가 대고부, 셋째가 호부, 넷째가 군악부이다. 구자부에는...⁴⁷⁾

동남아 지역에 구자, 즉, 쿠차음악이 전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료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사막 실크로드를 통한 문물교류와 동남아의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문물교류를 평행선을 그린 계통으로서 간주하고 있으나, 이 기사를 통해 사막 실크로드와 해양 실크로드 사이에도 횡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료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교류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직접 교류했다기 보다는 중국을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도 클 것이다. 그러나 『신당서』에서 이 구자부의 음악을 비롯한 표국의 음악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중국과는 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해 전해졌으나 동남아 지역에서



<그림 14>
청동불두, 베트남 My Lam 출토,
높이 4.9cm, 베트남 역사박물관

47) “凡樂三十，工百九十六人，分四部，一龜茲部，二大鼓部，三胡部，四軍樂部。龜茲部...”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2011: 1027).

새롭게 변안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여하간, 동서의 문화교류를 보다 입체적으로 고찰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간다라 양식이 농후한 청동불두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림 14] 다른 불상들과 달리 완연한 아몬드식의 파상발은 이 불두가 간다라 불상양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인도, 혹은 스리랑카와 같은 지역 뿐 아니라, 북인도, 즉 간다라 지역과의 교류관계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으나 위 사료에 이어서 춤동작 및 악단의 구성과 배치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서 고대 가무의 복원적 고찰에 매우 중요한 사료적 의미를 지닌다.

2.4.5. 사료 C-3.

【표국】 (표국왕) 옹강 또한 실리이성의 성주 서난타를 보내 나라의 악을 바쳤다. 성도에 이르자 위고가 다시 그 소리에 따라 악보를 정리하였다. 위고는 또 그 춤의 모양과 악기가 특이한 까닭에 그림으로 그려서 바쳤다. 악기는 스물 둘이고... 곡명은 모두 12개이다. 첫째는 <불인>인데 표국에서는 <몰타미>라고 한다. 표국 사람들과 천축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불러 국왕을 받든다... 여덟째는 <감자왕>인데 표국에서는 <알사락>이라 말한다. 불법이 민을 가르치는 것이 사탕수수의 달콤함과 같아서 모두 그 맛을 기뻐함을 말하는 것이다...⁴⁸⁾

이 기록은 『구당서』에 기술된 실리이성의 음악인데, 역시 춤동작 및 그 의미, 악기의 구성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특히 <불인>은 천축과 같다고 하여 천축과의 영향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 My Son 유적지에서 발견된 제단의 기단부에 부조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상들의 표현은 발달된 동남아시아 음악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그림 15]

48) “雍羌亦遣弟悉利移城主舒難陀獻其國樂，至成都，韋舉復譜次其聲。以其舞容A樂器異常，乃圖畫以獻。工器二十有二... 凡曲名十有二。一曰佛印，驃云沒馱彌，國人及天竺歌以事王也... 八曰甘蔗王，驃云過?思略，謂佛教民如蔗之甘，皆悅其味也。”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2011: 1033-1038).



<그림 15> 베트남 My Son 유적, 제단 기단 부조(기악인), 7세기경

Ⅲ. 『집신주삼보감통록』과 『위서』 「석로지」 관련사료

3.1 『집신주삼보감통록』

3.1.1 상권 제20

진나라 의흥 원년(의희 원년의 오류, 서기 405년)에 한 입을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한과의 사리를 갖고 있었으며, 재를 올리는 날마다 방광이 있었다. 혜수란 스님이 광주자사 조규를 따라 남방에 있을 때 그 방광하는 모습을 공경하여 이를 청하려 하자 아직 말도 하기 전에 사리가 스스로 둘로 나뉘었다. 조규가 이 말을 듣고 마음 속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남겨두고 공경하게 하기를 청하니 또 사리가 스스로 세 개로 나뉘었다. 이에 조규는 장간사의 탑상 모양을 본따서 탑을 세우고자 하니 절의 주지가 고집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그리하여 상이 이루어지자 조규는 사리를 부처님의 육계 안에 붙여두었다. 서방에서 온 여러 불상 가운데 방광하는 불상이 많은 것은 사리를 품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49) “晉義興元年. 有林邑人. 嘗有一舍利. 每齋日放光. 沙門慧邃. 隨廣州刺史刀達在南. 敬其光相欲請之. 未及發言. 而舍利自分為二. 達聞心悅. 又請留敬. 而又分為三. 達欲模長干像. 寺主固執不許... 既成. 達以舍利著像髻中. 西來諸像放光者. 多懷舍利故也.” 『집신주삼보감통록』, T.2106(51, 411a). 번역문은 道宣 撰 『集古今佛道論衡 外』(동국역경원 1999)에 실린 해당 번역문을 인용.

동남아는 때로는 진신사리의 주요 입수처였던 것으로 인식되었다. 앞서 동남아 지역의 진신사리 신앙과 더불어 이 기사 역시 중국에 유통된 일부 사리가 동남아에서 유래되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3.1.2. 증권 제4.

그 당시(西晉)는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가 없어서 여러 영웅들이 각자 자신들의 뜻을 도모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秦·宋·燕·趙 나라에 표문을 보내고 현과 조세를 바치며 숭상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상국·호국·여국·오국·곤륜·북대의 일곱 나라에서 금동상을 보냈다. 승량은 그 불상을 공양하고 모셔서 예를 다하였는데, 그때마다 상서로운 일이 있었다. 그 불상을 한 불당에 모셨는데, 문을 항상 열어놓아도 새들이 와서 범접하지 않으니 모두 불상을 공경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 절은 지금에 이르기까지(초당시기) 350여년이 되었는데 절과 탑의 기본적인 틀은 본래의 것과 같다. 수나라 때에 고쳐서 신통도량으로 만들었으며, 지금껏 절이 있다.⁵⁰⁾

고구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불상이 서진시대에 중국에 전해져 영험한 불상으로 숭앙받았던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그 중에 곤륜이 포함되어 있다. 곤륜은 『구당서』에 의하면 입음 남쪽의 머리가 곱슬하고 피부가 검은 이들을 통칭한다고 하였는데, 『집신주삼보감통록』의 곤륜은 대체로 베트남, 캄보디아를 통칭한 것 같다.⁵¹⁾ 이들 불상이 이미 서진시기에 전해졌다고 하였는데, 고구려 및 동남아 지역에 전하는 불상 유물로 본다면 너무 이른 시기인 것 같다. 아마도 수~당대에 걸쳐 조성되었지만, 더 오래전에 유래되었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0) “于時天下無主英雄負圖。秦宋燕趙莫不致書崇敬。割縣租稅以崇福焉。故有高麗相國胡國女國吳國崑崙北代七國所送金銅像。朗供事盡禮每陳祥瑞。今居一堂門隔常開鳥雀莫踐。咸敬而異之。其寺至今三百五十許歲。寺塔基構如其本焉。隋改為神通道場。今仍立寺。” 『집신주삼보감통록』(T.2106, 15, 414a). 이와 동일한 기사가 『續高僧傳』 『釋僧意傳』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다만 『감통록』의 北代가 『속고승전』에서는 岱京으로 기술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문맥상 아마도 北代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때 ‘代’는 북위 선비족의 본향으로서 북방지역에서 보내온 불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 외 고려, 호국, 오국, 곤륜 등도 모두 중국을 둘러싼 동서남북 각지의 여러 민족을 대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1) 곤륜에 대해서는 淺瀦 毅(1993) 및 허형욱(2006) 참조.

3.1.3. 중권 제27.

제(齊)의 건원(479~482) 초의 일이다. 태원왕 염은 예전에 아주 어려서 교지에 있었는데, 그곳의 현법사에게 오계를 받고 관음금상을 공양하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뒤 마침내 양도에 돌아오면서 관음보살상을 받들고 돌아와 남간사에 기증하였는데, 염이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니 보살상이 자리의 구석에 서있었다…⁵²⁾

이 기사는 베트남 지역에서 관음신앙이 유행했었다는 사실과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보살상이 5세기 후반에 중국에 전해졌고, 이것이 영험함으로 인해 숭앙되었을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아마도 시기는 늦지만, 베트남 Tang Long 출토의 7~8세기경 석조 관음보살입상은 위 사료에 등장하는 관음보살상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그림 16]



<그림 16>
석조관음보살입상 7~8세기경
높이:1.88cm 베트남 Tan Long

3.2 『위서』 「석로지」

태안초(455), 사자국의 사문 야사유다(邪奢遺多, Yasovida) · 부타난제(浮陀難提, Buddhananda) 등 5명이 불상 3구를 가지고 경도(평성)에 이르렀다. 모두 이르기를 “서역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 부처의 영적과 육계를 볼 수 있다. 외국의 여러 왕들이 서로 이어서 모두 공장을 보내어 그 용모를 베껴갔는데, 난제가 만든 것에 미치지 못하였다. (부처의 영적은) 십여보의 거리에서 보면 뚜렷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희미하게 된다”고 하였다.⁵³⁾

52) “齊建元初。太原王琰昔在幼稚。於交趾賢法師所受五戒。以觀音金像令供養。遂奉還揚都寄南澗寺琰畫寢夢像立于座隅意甚異之。” 『집신주삼보감통록』(T.2106, 15, 419a).

53) “太安初年，有西域僧人師子國邪奢遺多 浮陀難提等五人 奉帶佛像三尊 來到京城。都說，走遍了西域各國，看到佛像影迹及肉髻，外國諸王前後相繼承，派遣畫工，摹寫佛的形像，所有這些沒有一個能够趕得上難提所造的佛像，距離十多步之外，看上去光彩奪目，但越是走近越是模糊。” 원문은 許嘉璐 主編(2004, 2451). 번역문은 전영섭(2000)을 인용하였다.

동진에 스리랑카의 옥상이 전해져 있었던 것처럼, 이보다 이른 시기에 북위에도 스리랑카의 불상이 전해져 있었다. 북위에 스리랑카의 불상이 전해진 것은 드문 경우였겠지만, 이 상이 북위에서 존송을 받았었을 것을 생각해보면 그 영향력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중국 남조’의 공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IV. 맺음말

이번 발표에서 고찰한 자료들은 동남아시아인들이 아닌 중국측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가 이전에 쓴 법현이나 의정의 기행문에 등장한 동남아는 비록 중국인의 시각에 의해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해될 수 있으나, 이번에 고찰한 자료들은 직접 보고 쓴 기사가 아닐 수 있고, 또한 개인적인 기록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실제의 상황과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꼼꼼히 집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전의 논고에 이어 이번에도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주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단지 필자의 개인적인 연구노트 수준의 작업이긴 하지만, 이 논고를 통해 작년 번역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의 동남아 관련 기사를 동남아시아 연구 입문자들에게 소개하고 관심을 재고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작은 의미나마 찾아보고자 한다.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기록들을 통해 스리랑카의 불교문화가 남조뿐만 아니라 북조에도 전해졌다는 점, 또 서역북로 쿠차의 음악이 동남아에도 전해졌다는 점, 서로 인접한 힌두교 나라 임읍과 불교 나라 부남의 갈등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남왕이 승려 나가신을 매개로 중국과 접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 사람들은 아쉬운 대로 동남아에서 온 사리라고 하면 진신 사리라고 받아들였을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보았던 것이다.

아마도 이 외에 빠뜨린 부분도 많을 것이고, 다루기는 했지만 간과하고 집어내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선학과 동학 제위의 조연과 질정을 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주제어 : 南齊書, 梁書, 舊唐書, 新唐書, 集神州三寶感通錄

참고문헌

2010.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6』 南齊書·梁書·南史 外國傳 譯註. 김유철·하원수 역. 동북아역사자료총서26.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0』 舊唐書 外國傳 譯註, 상·하.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 동북아역사자료총서30.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1』 新唐書 外國傳 譯註, 상·하. 김유철·하원수·김정희 역. 동북아역사자료총서31,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道宣撰. 『集神州三寶感通錄』(T.2106)
- 道宣撰. 1999. 『集古今佛道論衡外』 서울: 동국역경원.
- 許嘉璐 主編. 2004. 『二十四史全譯 魏書』 4冊. 漢語大詞典出版社.
- 강희정. 2011. 동남아시아의 고대 불교조각: 남방해로를 통한 인도 불교미술의東傳. 『동남아시아의 불교조각』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동남아시아의 불교조각』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 소현숙. 2008.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서상’ 숭배와 그 지역성. 『중국사연구』 55.
- 오타니 나가오(小谷仲男). 2008. 『대월지-중앙아시아의 수수께끼 민족을 찾아서』 서울: 아이필드.
- 이우태. 1984. 한국고대의 척도. 『태동고전연구』 창간호.
- 이주형 외. 2007. 『동양미술사』 하. 서울: 미진사.
- 전영섭. 2000. 위서 석로지 역주. 『중국사연구』 8.
- 주수완. 2010. 중국문헌을 통해본 중세 동남아의 불교문화(Ⅰ). 『수완나부미』 2(1).
- 허형욱. 2006. 근륜노 도상의 연구-법주사 석조인물상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4.
- 淺瀨 毅. 1993. 薬師寺金堂本尊台座の異形像について. 『仏教芸術』 208. 東京: 毎日新聞社.
- 陳佳榮·謝方·陸峻屹. 2002. 『古代南海地名匯釋』 北京: 中華書局.

- John Guy. 1991. The Mahabodhi Temple: Pilgrim Souvenirs of Buddhist India.
The Burlington Magazine. 133(1059).
- Nancy Tingley etc. 2009. *Arts of Ancient Viet Nam from River Plain to Open Sea*. Asia Society · The Museum of Fine Arts. Yale University Press.

Received: Apr. 10, 2012; Reviewed: May, 5, 2012; Accepted: Jun, 08, 2012

<Abstract>

Some Views for the Buddhist Culture of Southeast Asia at Middle Ages through the Chinese Description (Ⅱ):

Focused on the selected document from Chinese Official History and *Jí-shénzhōu-sānbǎo-gǎntōng-lù*

Su Wan JOO

Senior Researcher, The Art Histor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indijoo@hanmail.net

This essay is for a study on the survey of buddhist cultural literary document about the Southeast Asia by *Nanqishu*(南齊書), *Liangshu*(梁書), *Chiu T'angshu*(舊唐書), *Hsin T'ang shu*(新唐書) which are included in the Chinese Official History and *Jí-shénzhōu-sānbǎo-gǎntōng-lù*(集神州三寶感通錄), *Weioshu Shilao Ji*(魏書 釋老志). These documents allows us to imagine next some historical states.

First, these documents are recording this area, especially Funan, as a plentiful diggings of gold, silver, tin, copper, etc. These are important materials for gilt bronze sculptures. Further, this local produced gold called 'Yangmai(楊邁)' is recognized as same as Zímòjīn(紫磨金) in china, and these documents explains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bronze images and golden ornaments in Southeast Asia. Specially, this plentiful materials leads them to make a 10 wei(圍) tall golden-silver image which worshiped as hindu god or sometimes buddhist images.

Second, Vietnam and Funan in Northern and Southern Dynasty periods were in antagonistic relationship not only in the political but also in religious between Vietnamese Hinduism and Funan's Buddhism. Under this situation, the monk Nagaxian(那伽仙) who

had come from India was accredited to Southern Qi court as a delegate to build a good relationship by the common religion Buddhism. It means the Buddhism of Southeast Asia also took a role of diplomacy.

Third, these documents proved the active Southeast Asian cultural exchange in early 3th century. At this time, Funan delegate Suwu(蘇物) visited the court of Kushan Dynasty in India and he is seemed to travel the city of Pātaliputra. It oppressed us to extend our outlook which have been restric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ern india and Southeast Asia to more broaden area. In addition, the buddhist art of Southern India and Bodhgaya temple was imported to Southeast Asia directly to send to Southern China. For example, the wooden buddha image, Bodhgaya stupa image, and Sri Lanka style's buddha images are looked be introduced to Southern China at this time throughout the Southeast Asia.

At last, we got to know that the court music of Kucha in the northern silk route was imported to the Southeast Asia in early middle age. Even it may be introduced by China, but this document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surmise is not unreasonable that the buddhist culture of northern silk route imported to the Southeast Asia accompanied with Kucha music. The buddha images in Gandharan style which are excavated from some site of Southeast Asia may demonstrate this literary sources is authentic.

Key Words : Nanqishu, Liangshu, Chiu T'angshu, Hsin T'ang shu,
Jí-shénzhōu-sānbǎo-gǎntōng-lù